



죽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금강경’ 한글본 편찬사업을 보며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이웃종교의 <성경>이다. <성경>과 비견될 한국 불교의 스테디셀러는 단연 조계종 소의경전 <금강경>일 것이다. <금강경> 종류 또한 방대해서 도서사이트에는 200종이 넘는 <금강경> 번역·해설서가 검색된다.

개신교도들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믿음으로 <성경>을 출간했다면, <금강경> 출간은 철인(哲人)의 진리 회구 때문일까? 반야의 가르침처럼 무애하고 상(相)을 여인 <금강경> 뒷일까? 출가수행자, 불교학자는 물론 이웃종교인까지도 출간한 <금강경>을 보며 기호 대도무문(大道無門)이다.

이런 가운데 2008년 7월 <금강경> 한 종이 더 출간된다. 200여종의 개인적 불사 동안 침묵을 지켰던 조계종이 ▲구마라집 한역본을 기본으로 범본(梵本)까지 대조해 ▲공동번역 결과물로 ▲수차례 윤문과정을 거치고 ▲윤문화 작업 후 표준본을 출간·보급한다니 기대보다 우리가 앞선다.

우선 편찬사업에 소요된 2년여 1억여원의 사업기간과 비용은 어느 사찰 불사만도 못할 만큼 초라하다. ‘모든 상을 깨뜨리라’ (破相) 가르치는 <금강경>

을 종단 표준본이라는 상(相) 안에 가둬 다른 견해를 이단시하지는 않을까, 200여종으로 나뉜 <금강경>이 종단 표준본의 위치에 주눅 들까 노파심도 든다. 교계 일각에서는 <금강경> 표준본이 왜 필요한지를 되묻거나, “그 예산으로 <금강경> 표준화에 앞서 <한글대장경> 오역부터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해 <금강경> 표준화 사업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비판도 드세다.

<금강경> 편찬은 글자의 정확한 못지않게 그 뜻의 온전함이 생명이다. <금강경>오가해가 육조·부대사·야부 등 선사의 작품인 것은 수보리에게 설해진 설법 너머 교외별전(敎外別傳)을 아는 눈 밝은 선원 수좌스님들의 안목이 지중함을 반증한다.

<금강경>을 한역한 구마라집은 413년 입적하면서 “<금강경> 번역에 오류가 없다면 다비할 해도 하는 타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다. 그의 말처럼 그의 혀는 타지 않고 남았다.

6월 1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금강경> 편찬사업 회향을 앞두고 마지막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에서 구마라집 님은 선지식을 만나고 싶다.

“변화하는 종무원,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직장인들의 자기계발 붐, 공무원들의 살아남기 위한 평생교육이 일어난 요즘,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이 자발적인 교육체계 수립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이 최근 공개한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교육계획 개요(안)’에 따르면 일반직 종무원들의 평생교육체계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개발로 불교를 향도하는 신심있는 종무행정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변화를 잃어내고 변화를 추구하

는 종무원’이란 목표 아래 수립된 이 계획안은 ‘수행과 전법으로 정진하는 조계종’이란 조직의 비전과 미션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안에 따르면 평생교육체계는 신입종무원, 입사 년차별 교육, 팀장 및 팀별 교육으로 대상을 구분해 불교소양교육과 직무능력향상교육, 교양교육(양성평등, 친절, 정치·경제·문화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입종무원들은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조계종사와 불교사 등의 강의를 듣고 사찰의례를 습득하는 2박

3일 일정의 사찰 수련회를 거치는 신입교육을 받게 된다. 입사 6개월 이내 종무원들은 3개월 과정의 기본교육을 받고, 3년차까지 종무원은 불교대학(2년제)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불교대학을 수료한 4년차 이상 근무자들은 재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유마경> <범망경> <육조단경> 등 경전공부와 함께 안거기간에 1차례 포살법회를 열어 자율적인 수행 분위기도 조성하게 된다. 각 단계별로 수련회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했다.

이러한 교육체계는 출초 각 부서 국장 및 팀장급으로 종무원교육체계 수립팀을 구성, 2개월간 발제와 토론

등 논의를 통해 수립된 것. 이미 지난해 직무교육과 소양강의를 진행한 종무원은 올해부터 신행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해 왔다.

올해 남은 교육은 사찰수련회와 하반기 종무원 불교대학과정이다. 내년 이후 입사자는 새 교육체계에 따라 신도기본교육과 불교대학과정을 사찰에 가서 밟도록 할 계획이다.

종무원들의 신심을 증진시키고 자기계발을 유도하는 이러한 교육체계는 지난 5월 22~23일 양평 남한강연수원에서 열린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전체연수에서도 드러났다. ‘변화하는 종무원, 당신이 아름답습니다’란

주제로 열린 종무원 연수 입석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 “중앙종무기관의 종무원은 종단과 불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투철한 신행,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종무원들은 이 연수를 통해 바람직한 종무생활을 위한 행동규범(행규) 제정을 결의하기도 했다.

정·관·경제·종교계 인사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일반인들과 수시로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종무원들. 이들은 직무의 전문성과 함께 확고한 불심으로 불법을 호포하는 실질적인 포교사역활을 하기 마련이다. 기획실 박정구 홍보팀장은 “업무상 만난 분들이 불교에 호감을 갖거나 좀더 공부하고 싶다고 말할 때는 교리 공부와 수행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철밥통’이란 오명을 들던 공무원들도 생존을 위한 치열한 자기계발 시대에 들어서 요즘, 불교인공들의 의무적인 발심에 불교 중흥의 희망이 엿보인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buddhapia.com

### 종지협 지원사업 선정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의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가 지역의 종교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제3회 지역종교문화행사 지원공모사업’ 심사결과를 6월 2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행사는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해설이 있는 다문화 종교순례 △제5회 원주 종교가을음악회 △제9회 생명존중과 평화정착을 위한 기도회 및 작은음악회 △훈의 소리 - 전북 종교예술제 등 4개 사업이다.

지원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는 각각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총 1800만원의 지원금이 전달된다.

김성우 기자

## 조계종 직할교구 포살법회 봉행

### 지관 스님 포살법사로...조계종 스님 8696명 결계 신고



6월 3일 지관 스님을 법사로 봉행된 조계사 포살법회. (사진=박재원 기자)

“대중 가운데 보살계를 받지 아니하고 청정치 못한 이는 없습니까?” “이 대중 가운데는 보살계를 받지 아니한 이와 청정치 못한 이는 없습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6월 3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지관 스님을 포살법사로 스님 206명이 동참한 가운데 직할교구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하안거부터 시행하는 결계 및 포살제도에 따라 각 교구본사별로 결계기간 중 포살법회를 한 차례 실시

하도록 돼있는 가운데, 직할교구인 조계사는 5월 30일 불국사에 이어 두 번째로 포살법회를 봉행한 것. 이날 법회에서 포살법사인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보살계를 받은 이로써 지켜야 할 10가지 중대한 계율인 십중대계(十重大戒)와 그보다 가벼운 48가지 경구계(輕垢戒)를 100분 동안 설했다.

이번 포살에 앞서 조계사에 결계 신고를 한 스님은 모두 900여명. 이날 포살에 참석한 스님 이외의 700

여 스님들은 6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청화, 혜종, 원학 스님 등을 포살법사로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조계사에서 포살법회를 갖는다. 불국사, 조계사에 이어 나머지 23개 교구 본사와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에서는 결계신고를 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각각 날짜를 정해 포살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이 올 하안거부터 시행한 결계신고에 동참한 스님은 모두 8969명(6월 3일 현재)으로 전체 재적승 1만3576명(2007년 현재)의 약 66%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 총무부 관계자는 “교구본사별로 아직 결계신고가 완전히 취합되지 않아 정확한 집계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결계 신고기간(5월 29일)이 지났지만 계속 접수를 받아 가능한 많은 스님들이 결계신고에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결계신고율이 예상보다 낮아 결계기간에도 계속 결계신고를 독려하고, 당분간 계도 및 유예기간을 둔 후 내년 봄에 첫 결계기록을 발간할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 中·미안마 구호성금 1억2000여만원 모금

미안마 사이클론과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피해를 받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불자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은 6월 4일 현재 중국·미안마 구호성금 약 1억20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사회부 관계자는 “불자들이 보살심을 발휘해 중국·미안마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6월 30일까지 불자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양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서해안 기름 유출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을 전개한 결과, 모두 1억 6500여만 원이 담지했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6월 15일 태안에서 전달식을 겸한 서해안 피해 복구 지원법회를 열고 1차 지원금 4166만원을 댔 1억2334만원을 피해 불자가정에 생계비와 장학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미안마·중국 이재민 돕기 성금 접수 : 국민은행(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023501-04-127811, 문의 : 022011-1830.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구 안국동 175-87 한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여시이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간과 창의를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 지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동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 필름 광고